

2025년을 마감하며...

사랑하는 넘버즈 구독자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넘버즈 리포트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과 사회의 변화를 나누다 보니 벌써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 해 동안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걸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목회자가 세상을 보는 ‘창(窓)’을 지향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와 트렌드를 한국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종립/가치 종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교회가 온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연구소의 역할을 통해 한국교회가 현 상황을 직시하고 나아가 교회의 전략적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이는 오직 넘버즈를 매주 읽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의 덕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선교’가 가능하게 한 동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변함없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1.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는 정직한 데이터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2. 현장 목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지표를 끊임없이 발굴하겠습니다.
3. 교회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세상을 보는 “창”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사역하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및 직원 일동 드림

2025 Numbers TOP 7

2025년은 한국교회와 사회 모두에게 불확실성과 전환이 일상화된 한 해였다. 저성장과 고물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로 다가왔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 인식의 간극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교회가 익숙하게 유지해오던 구조와 운영에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넘버즈 317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행한 47호 리포트 중 독자 조회수 등 내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과 반응이 가장 높았던 7개 콘텐츠를 선별하여, 인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1. 한국교회 청빙, 2. 신대원생의 삶과 사역 인식, 3. 목회자의 노후 준비, 4. 교회 이탈 청년, 5. 여교역자의 현실, 6. 지방 소멸, 7. X세대의 현주소

이 일곱 개의 주제는 2025년 한국교회의 현재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질문들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핵심 지점들이다.

이번주로 넘버즈 317호를 맞는다. 그간 쉽 없이 달려왔는데 내년에도 교회와 시대를 보는 창(窓)의 역할을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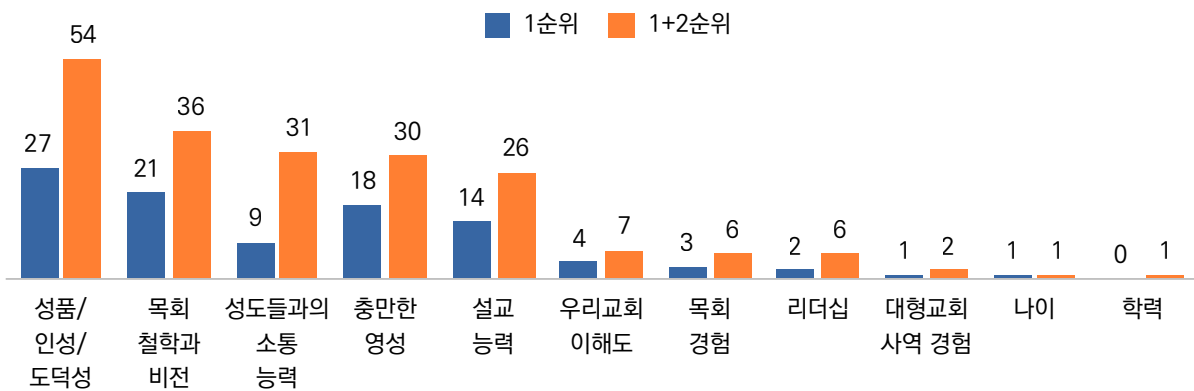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한국교회 청빙 조사 결과] 청빙 담임목사 조건, '설교'보다 '성품'이 더 중요!

- 향후 10년 내 한국교회 담임목사 2/3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담임목사님을 청빙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담임목사 후보자 평가 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2순위)은 '성품/인성/도덕성'(54%)이었다. '목회 철학과 비전'(36%), '소통능력'(31%), '설교 능력'(26%)보다 성품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또, 1순위 응답에서 5위인 '성도들과의 소통능력'이 1+2순위에서는 3위로 높아진 점은 담임목사와 교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소통능력'이 덕목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설교 능력'은 5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담임목사 후보자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2가지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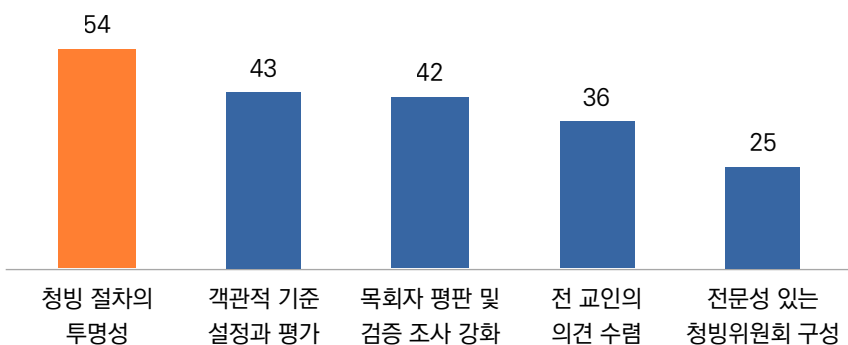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한국교회 청빙 실태와 인식조사), 2025.09. (목회자 조사: 전국의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5.06.02.~06.10.) / 성도 조사: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청빙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절차의 투명성'!

- 청빙 시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청빙 절차의 투명성'이 54%로 가장 많았고, '객관적 기준 설정과 평가'(43%), '목회자 평판 및 검증 조사 강화'(42%), '전 교인의 의견 수렴'(36%)이 뒤를 이었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상위에 랭크된 것은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담보될 때 신뢰할 수 있다는 교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 한편으로 평판조사를 제대로 못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평판조사가 2위권에 올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청빙 시 고려할 요소 (성도,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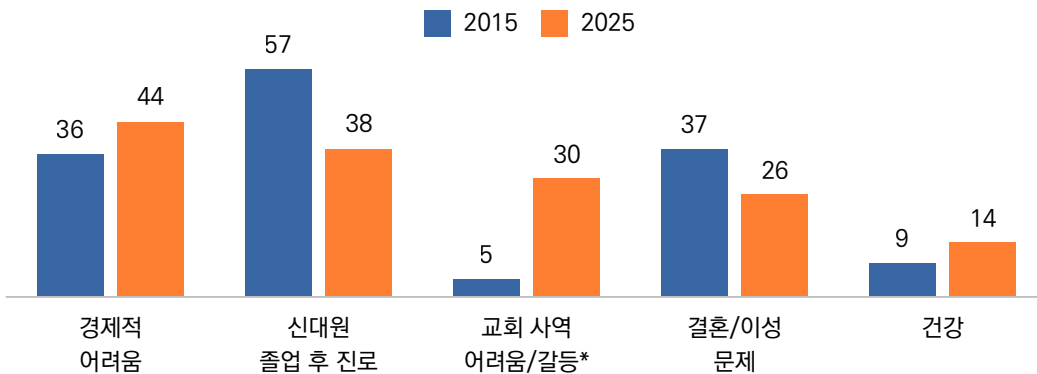
02

[신대원생 생활과 사역 인식]

신대원생의 고민, 10년 전에는 '진로',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

-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연합신문이 신대원생들의 신앙생활, 진로, 신학교육, 사역 전반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대원생의 사역과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신대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10년 전에는 1위가 '졸업 후 진로'(57%)였는데, 2025년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44%)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기를 신대원생들도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현재 고민 (1+2순위, 상위 5개, %)



※2015년 조사 : 기독교연합신문사, 신학대학원생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조사 (전국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300명, 2015.04.15.~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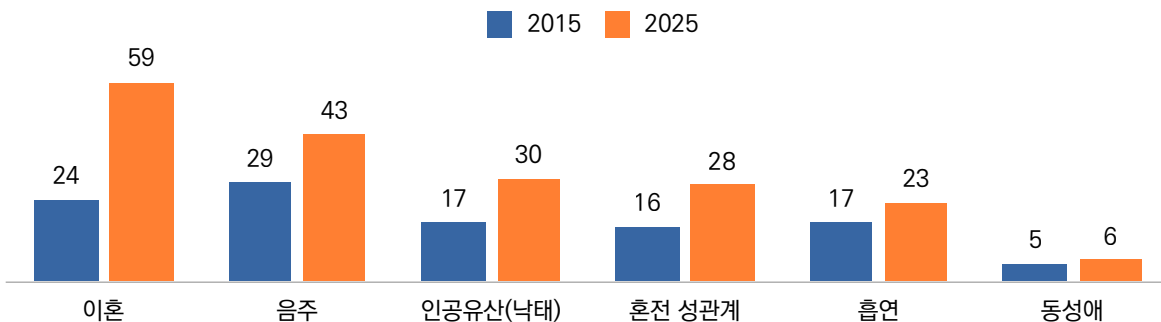
※2025년 조사 : 기독교연합신문사, 신학대학원생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조사, 2025.03.(전국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344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5.03.07.~03.14.)

*2015년 조사 보기에는 '사역' 4.0%, '교회 안의 문제' 0.7% 나뉘져 있어, 보기를 합한 수치임.

10년 전과 비교, 신대원생의 윤리의식 크게 약화

- 신대원생 대상으로 음주, 흡연, 이혼 등 6가지 윤리 항목에 대해 인식을 묻은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해도 무방하다'는 긍정률은 2015년 조사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혼'에 대한 긍정률은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음주', '인공유산(낙태)', '혼전 성관계' 허용 인식도 10%p 이상 상승해 주목된다. 이는 신대원생의 윤리의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신대원생의 윤리의식 (본인 기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해도 무방하다' 비율*, %)



※출처 : 기독교연합신문사, 신학대학원생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조사, 2025.03.(전국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344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5.03.07.~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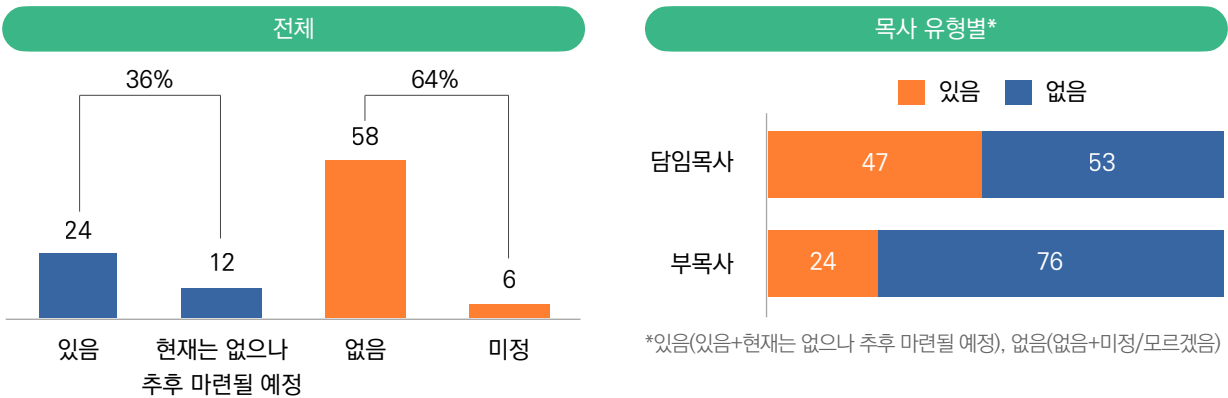
*3점 척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

03

[목회자의 노후 준비] 목회자 3명 중 2명, 은퇴 후 살 집 없다!

- 소형교회 비중이 큰 한국교회 특성상 목사라는 직업은 노후 준비가 안 되거나 부족한 것이 실상이다.
- 목회 은퇴 후 주거할 자가 주택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 3명 중 1명(36%)은 '있음'(24%) 혹은 '현재는 없으나 추후 마련될 예정'(12%)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 중 2명가량(64%)은 은퇴 후 주거지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은퇴 후에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 자가 주택 보유 비율('추후 마련될 예정' 포함)은 담임목사(47%)가 부목사(24%)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은퇴 후 주거할 자가 주택 여부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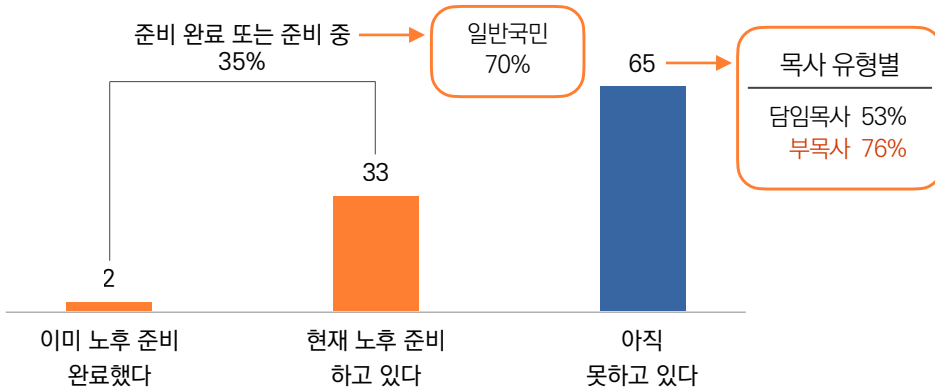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인식 조사, 2024.11.(전국의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400명, 온라인 조사, 2024.08.20.~08.23.)

노후 준비율, 일반국민 70%인데 반해 목회자는 35%!

-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에 관해 목회자 3명 중 1명 정도(35%)만이 '이미 완료'(2%)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다'(33%)고 응답했다. 반면 '아직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목회자 3명 중 2명꼴(65%)이었고, 부목사(76%)가 담임목사(53%)보다 크게 높았다.
- 목회자와 일반국민(만 19세 이상)*을 비교했을 때, 노후 준비율(완료+준비 중)은 일반국민이 70%로 목회자 그룹(35%) 대비 월등히 높았다. 그만큼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림]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목회자,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인식 조사, 2024.11.(전국의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400명, 온라인 조사, 2024.08.20.~08.23.)

*일반국민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만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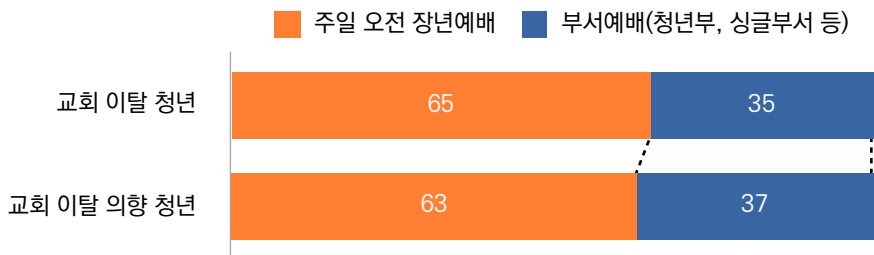
04

[교회 이탈 청년 조사]

이탈(의향) 청년 3명 중 2명 가까이, '장년예배'에 숨어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합동)가 우리 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5년 내 교회를 이탈한 미혼 청년과 아직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 이탈 의향이 있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교회 이탈 청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교회 이탈 청년'이 과거에 주로 드렸던 주일 예배는 '장년 예배'가 65%, '부서예배'(청년부, 싱글부서 등)는 35%에 그쳤다. 현재 교회 출석 중인 '이탈 의향 청년' 역시 3명 중 2명 가까이(63%)가 장년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결과는 예배만 드리고 소속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이 상당함을 암시하는데, 이들이 1차적으로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큰 그룹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회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년예배 속에 숨어 있는 청년들을 청년 공동체로 이끄는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주로 드리던/드리는 주일 예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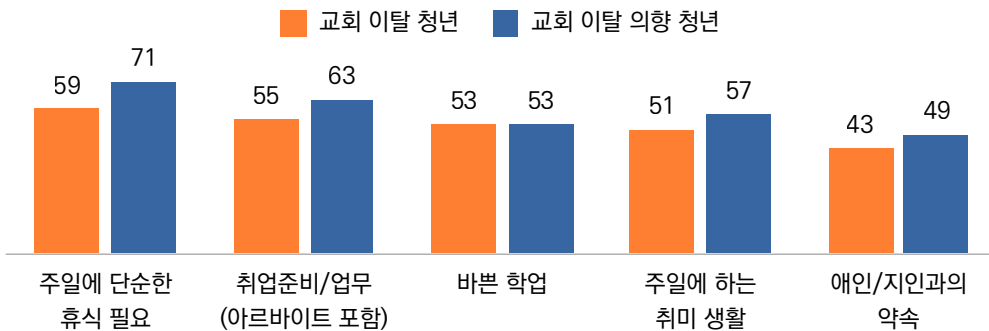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합동), 교회 이탈 청년 조사, 2025.06. (만 19~39세의 최근 5년 내 교회 이탈 미혼 청년 300명/향후 교회 이탈 의향이 있는 미혼 청년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4.28~05.07.)

'주일에 쉬고 싶다', 청년 이탈 요인 1위는 휴식!

- 이제부터 각 영역별 청년들의 교회 이탈 요인을 파악해 본다. 먼저 개인 생활 측면에서의 교회 이탈 요인으로는 '주일에 단순 휴식이 필요해서'(이탈 청년 59%, 이탈 의향 청년 7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탈 청년은 '취업준비/업무'(55%), '바쁜 학업'(53%)을, 이탈 의향 청년은 '취업준비/업무'(63%), '취미 생활'(57%)을 주요 이탈 사유로 꼽았다.
- 이는 주일에도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 세대의 뚜렷한 워라벨 가치관을 반영한다. 또한, 청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 공동체에서 점차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는 교회 예배와 교제 등을 통해 충분한 영적인 쉼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일 수도 있다.

[그림] 청년 이탈 요인 (항목별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한 적이 있다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합동), 교회 이탈 청년 조사, 2025.06. (만 19~39세의 최근 5년 내 교회 이탈 미혼 청년 300명/향후 교회 이탈 의향이 있는 미혼 청년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4.28~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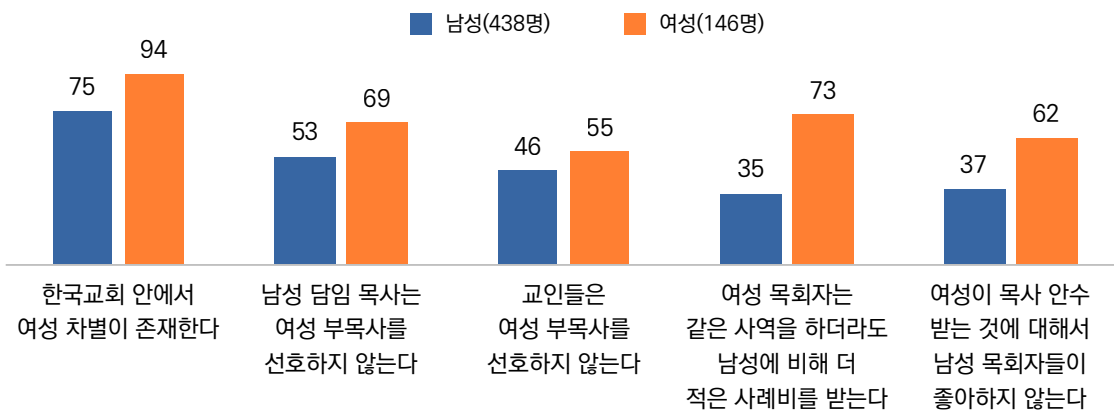
*5점 척도

05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 여성 목회자 94%, '한국교회 내 여성 차별 존재한다!'

- 한국교회 여성 목사 안수가 시작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내 여성 목회자의 위상과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에 대해 여성 목회자의 동의율은 94%로 남성 목회자 75%보다 크게 높아 여성 목회자가 느끼는 차별이 남성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냈다.
- 모든 항목에서 여성 목회자가 남성 목회자보다 남녀 차별을 더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이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남성 목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와 '여성 목회자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더 적은 사례비를 받는다'는 여성 목회자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각각 25%p, 38%p 높게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1: 남녀 차별 (목회자,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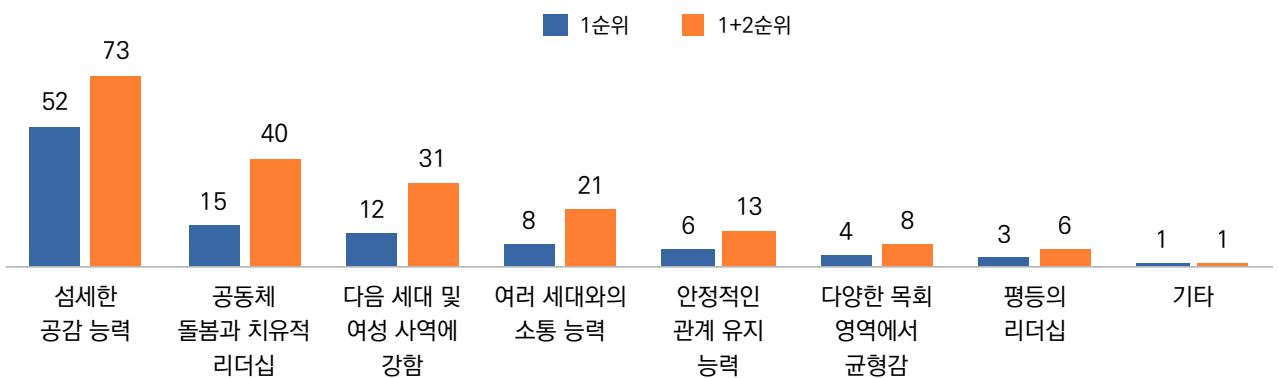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의 여교역자 인식과 실태, 2024.11.(전국의 목회자 584명(담임목사 250명, 부목사 250명, 여전도사 84명), 온라인 조사, 2024.08.20.~08.23.)

*4점 척도

여성 목회자의 강점, 섬세한 공감능력/돌봄!

- 담임목사가 꼽은 여성교역자의 강점으로(1+2순위)는 '섬세한 공감 능력'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공동체 돌봄과 치유적 리더십'(40%), '다음 세대 및 여성 사역에 강함'(31%) 등의 순이었다.

[그림] 여성 목회자의 강점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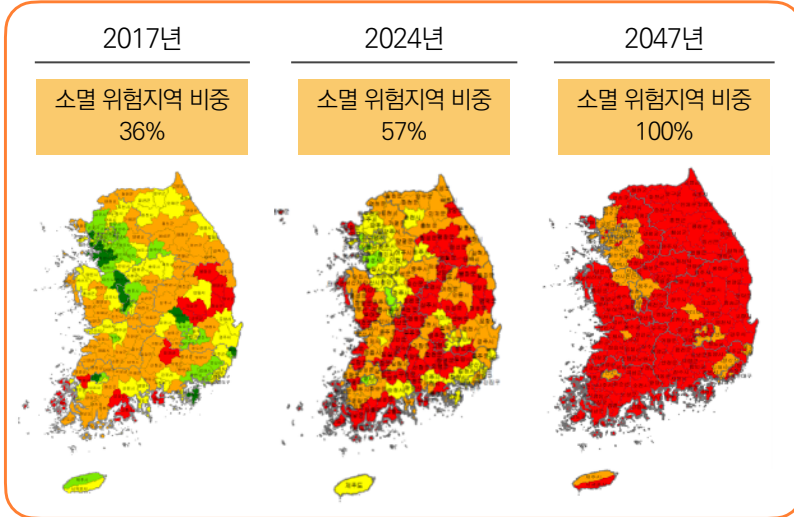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2025.09.(전국의 목회자 500명, 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5.05.23.~05.28.)

06

[지방 소멸] 약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 진입!

- 감사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 차원에서 현 수준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미래 지방의 소멸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정보원과 함께 시군구별 향후 소멸 위험을 예측한 감사보고서를 2021년에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47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 중심 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시군구별 소멸 위험지역 현황 및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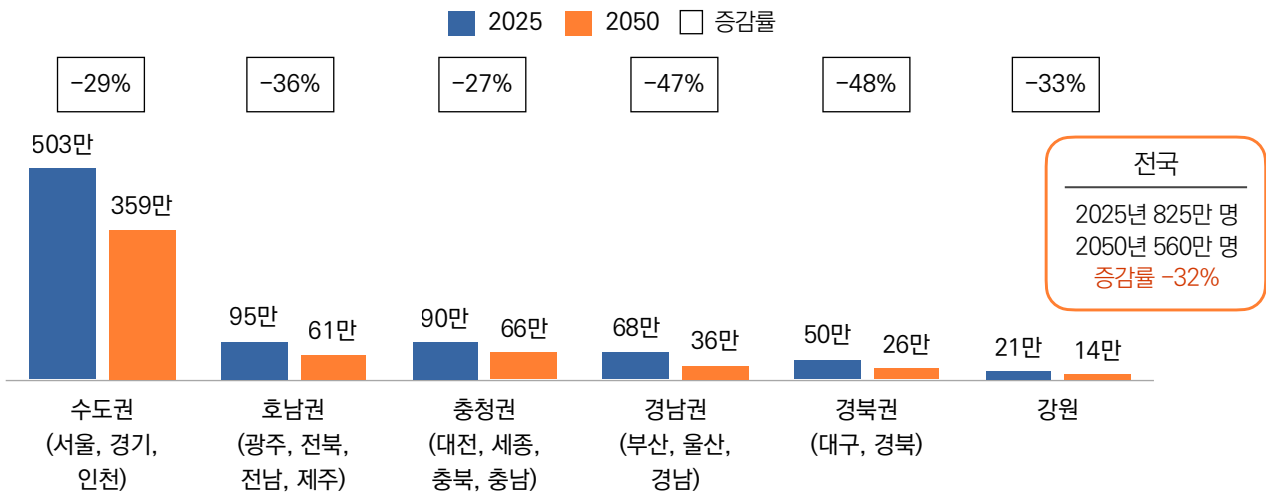
색상	명칭	소멸위험 지수
빨강	소멸 고위험 지역	0.2 미만
주황	소멸 위험 지역	0.2~0.5미만
노랑	소멸 주의단계	0.5~1.0 미만
연두	정상	1.0~1.5 미만
초록	소멸 저위험	1.5 이상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024.06.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2021.07.

이대로 가면 25년 후 경상도 지역 기독교인 수 절반 가까이 줄어!

-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한국교회 지방의 교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공동으로 2050년까지 한국기독교 인구수를 예측하는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최근 발표하였다.(넘버즈255호)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기독교인 수는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의 감소율(47~48%)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권역별 기독교인 수 전망 (명)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 2024.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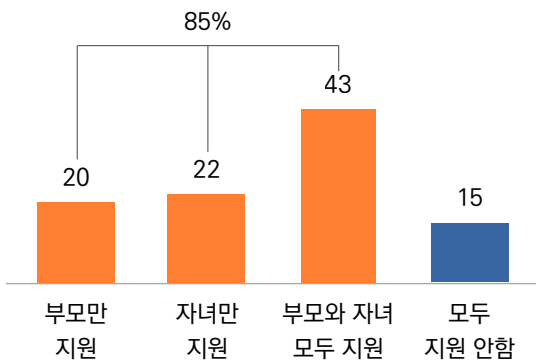
Note) 이 프로젝트는 한교총/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연세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 2023.10.18.~2024.01.0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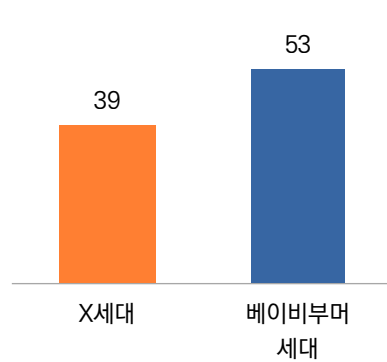
[X세대(1970년대생, 46~55세)의 현주소] X세대의 43%, 현재 부모와 자녀 동시에 부양중!

- 대한민국에서 X세대는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며, 베이비부머세대와 MZ세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대이다.
- X세대를 대상으로 가족(자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X세대의 대부분(85%)은 자녀 또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자녀와 부모 동시에 이중 부양하는 X세대는 43%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 X세대의 노후준비율은 39%로 10명 중 4명만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모 또는 자녀', '부모+자녀 모두'를 부양하는 비율이 85%에 달한 것으로 봤을 때, 가족부양 부담 요인 등으로 본인의 노후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X세대의 가족부양(경제적 지원) 현황 (%)



[그림] X세대 및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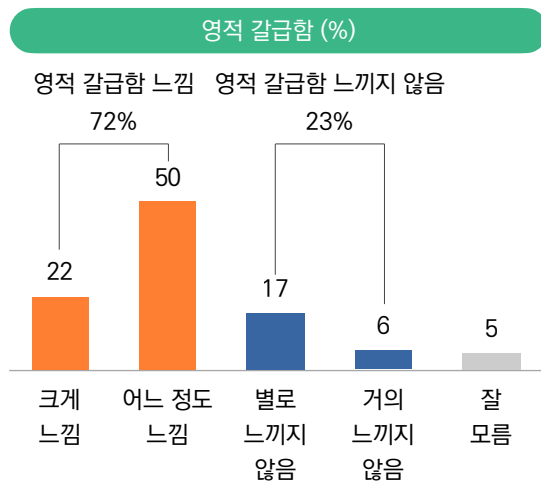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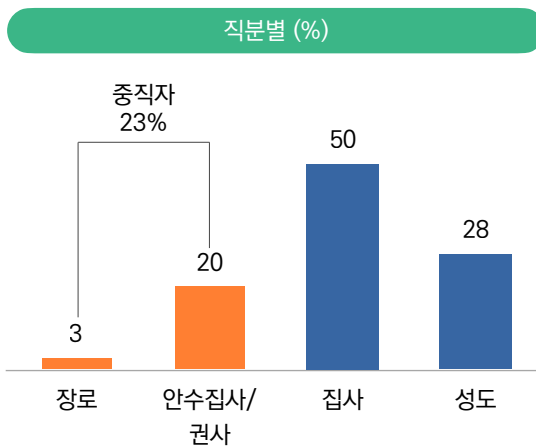


※출처: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세대별 노후 준비 시작한 나이를 질문하여 준비 여부 확인

교회 내 X세대 10명 중 7명, 현재 영적 갈급함 느낀다!

- 한국교회트렌드 2025 조사 결과에서 X세대 교회출석자의 신앙 특성을 일부 살펴본다. 직분별로는 집사가 절반(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도 28%, 장로 등 중직자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 X세대 교회 출석자의 '평균 신앙생활 연수'는 33년으로 조사됐고,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 7명(72%)에 달했다.

[그림] X세대 교회 출석자 전반적 특성 (교회출석 기독교인)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4.06.(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4.~06.03.)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